



# 아끼면 뭐하나... 제주 집값 천장 뚫었다

### 8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당 836만원... 전국평균의 갑절 1년 전보다 80% 오르며 서울 다음으로 비싼 곳은 '제주'

제주지역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동안 민간아파트 가격은 천장을 뚫으며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과 갈수록 격차를 좁히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전국평균 분양가보다 낮았고, 서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던 도내 분양가가 미친듯 오르면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내집 마련의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냐?”며 허탈해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836만원으로 전국평균(425만원)에 견줘 96.7% 비쌌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950만원) 다음으로 비싼 수준이고 제주 다음으로 대구(471만원), 부산(436만원), 울산(435만원), 인천(432만원), 광주(429만원), 경기(41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민간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면 제주 상승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8월 분양가(㎡당 465만원) 대비 79.8% 오르면서 전국평균 상승률(11.5%)에 견줘 7배 가까이 올랐다. 제주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18.2%), 서울(17.3%), 광주(16.2%), 대전

(11.1%)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7.0%), 강원(-6.2%), 경기(-1.6%) 등 3곳은 1년 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국평균가를 앞서기 시작한 것은 2016년 6월로 제주 ㎡당 283만원, 전국평균은 282만원이었다. 그 후 제주는 2016년 9월 ㎡당 분양가가 308만원으로 처음 300만원을 넘어섰고, 2020년 4월 409만원에 이어 올 1월 520만원을 기록한 후 3월 720만원, 5월 751만원, 8월 836만원까지 고공행진하면서 신규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비싼 곳은 전용 84㎡에 8억원 후반대에서 9억원대 초반까지 형성되고 있다.

반면 전국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완만하게 상승해 2017년 6월 ㎡

당 301만원으로 300만원을 넘어선 후 올해 3월 410만원, 8월 425만원으로 제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전국에서 분양가가 최고 수준인 서울의 경우 2016년 6월 분양가가 ㎡당 621만원으로 제주(283만원)보다 338만원 더 비쌌는데, 제주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 8월 기준 가격차는 ㎡당 114만원으로 축소됐다.

도내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주지역 아파트 공급률이 전국보다 낮아 수요가 꾸준한 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최근의 오름세는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본다”며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집값은 집 없는 서민층의 상실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 제주로의 인구 유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16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고영권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통과

### 제주도의회 적합 의견 담은 경과보고서 채택 “도정 안정·코로나 대응 위해 재임명 바람직”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16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고 예정자에 대해 ‘정무부지사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고 예정자에 대해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토지 취득 과정 등 일부 문제가 확인되고 축산악취 문제 등 정무부지사 소관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해 고 예정자의 사과가 있었고, 또 (지난) 인사청문 후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의 지적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 노력이 있었고, 주요 현안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지사 중도 사퇴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직전 정무부지사 역할을 수행 하였던 고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재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예정자는 모두 발언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 절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도정의 현안을 알뜰히 챙겨 민선 7기 도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드 코로나’ 등 새로운 전환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내년 제주도지사 출마 의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 예정자는 한경면 출신으로 고산초·중학교, 대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민선 7기 도정의 후반기 정무부지사로 발탁됐다. 이후 원회룡 전 제주지사의 사임과 함께 자동 면직됐으며, 최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다시 정무부지사로 지명 받아 두번째 인사 청문 절차를 밟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발기반정비사업 70억 투입 제주시, 10개 지구 사업 추진

제주시 한림읍 금악지구 등에서 추진되는 발기반 정비사업이 이달말부터 11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품질 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올해 발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악지구를 비롯 10개 지구에서 사업비 70억원을 투입 농업용 송·배수관로와 저수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발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농업용 저수조 7개소와 농업용수 송·급수관로 33.7km 등이 시설된다.

이 가운데 조천읍 복촌3지구(급수관로 890m)와 대흘8지구(급수관로 1300여m)는 9월 말 사업 완공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을 갈수기 전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돼 가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한림읍 금악지구 송·급수관로와 저수조 2개소 공사를 비롯, 애월읍 봉성8지구, 구좌읍 동북5지구, 동김녕4지구, 월정5지구, 종달7지구, 조천읍 조천6지구, 외도3지구 등도 추진중에 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태풍보다 먼저 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16일 제주공항에는 연휴를 보내려는 관광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 기업체 물류비 부담 여전히 높아

### 2020 매출액 대비 9.46% 비중 제주연구원, 107개 업체 조사

제주지역 기업체의 2020년도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평균 9.46%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제조업체 평균 6.53%(2018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보다 2.93%포인트 많아 물류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연구위원이

16일 내놓은 ‘제주 공산품 물류비 절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기업체의 2020년도 매출액 대비 평균 물류비는 9.46%로 이는 2007년 기준 조사결과치 14.9%에 비해서는 5.4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응답수는 운송료 83명(77.6%), 보관료 8명(7.5%), 기타 7명(6.5%), 하역료 5명(4.7%), 통관수

수로 4명(3.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제주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송과 보관부분의 문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 기업체 물류비 절감시 가격경쟁력 기여도를 묻는 결과 ‘기어할 것’이라는 응답 평균이 평균 4.50점(5.0점 만점)으로 나타나 물류비 절감과 가격경쟁력은 정비례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내 제조업체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실시했다.

고대모기자

##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 18세로 하향 조례 개정

제주지역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

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할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에서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황금향	5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한라봉	4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생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년생
감평(레드향)	1년생
탱자묘	1년생

## 한림종묘사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애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오하라베니(궁천베니),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원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귤요목

##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반권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골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베니지(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2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